

해남군, 장마철 재난·재해 제로화 나선다

23개소 소교량 전수점검...토목 구조 전문가와 합동 진행 재해취약지 등 지속 예찰...도시계획도로 빗물받이 준설

해남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 내 소교량에 대한 고강도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0개 읍·면에 위치한 소교량 23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천 내 소교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인 토목 구조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노후화된 소교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위험도를 정밀 평가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돼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

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해남군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 유지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찰,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최근 2주간 해남군이 관리 중인 방조제 5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조제의 균열, 침하, 누수 여부와 배수시설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빗물받이 준설도 해남읍 도심지를 시작으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장마철 반복 정비와 함께 호우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현장 인력을 즉각 투입해 실시간으로 배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최선의 예방책이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뿌리 뽑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국가유산야행’ 19~20일 개최 음성·향교 일원서 야간 문화행사

영암군은 국가유산 공공사업으로 선정된 ‘2026 영암 국가유산야행’을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영암읍 일원에서 개최한다. 영암군이 주최하고 영암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영암성대첩, 불굴의 향장으로 지켜낸 희망의 빛’을 주제로 영암읍성과 열무정, 영암향교 등 지역 국가유산을 무대로 진행되는 야간 체험형 문화행사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야행은 8야(야) 테마로 구성된다. 달빛 아래 영암읍성을 비추는 야간 경관조명과 이동형 스토리극, 달빛 트래킹, 강강술래를 비롯해 어린이 문화해설, 천인그림전, 뮤지컬 ‘영암성대첩 1555’, 달빛장터, 영암기후미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영암읍성 중심의 도보형 동선으로 구성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원도심을 둘러보고 지역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주민들이 배우와 해설사,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행사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신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별씨 온탕 소득 무료서비스

신안군은 벼 재배농가의 병해충 예방과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별씨 온탕 소득 무료서비스’를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13개 읍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847농가 30.5t, 지금까지 누적 6089농가 1758t의 별씨 온탕 소득을 실시했다. 별씨 온탕 소득 무료 서비스는 병해충 예방으로 초기 생육을 안정화하고, 안전한 종자 관리로 쌀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며, 농가 비용 절감으로 소규모 농가의 영농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어 많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향후 농가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온탕 소득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종자 소득기 확충과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작한 무상 온탕 소득 서비스가 농가의 높은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방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학생들 치유·힐링에도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제격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관광지인 완도해양치유센터에 최근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코스로 방문해 물리치료 등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즐겼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총 50개 학교의 1756명 학생이 해양치유의 효능을 직접 체험했다. 사진제공=완도군청

완도 9740명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70만원 지원...경영안정·경제활성화

완도군은 영농철을 맞아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경영 부담 완화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서 신청·접수, 대상자 검증,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 농·어업의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 및 농지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9740명이며, 6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을 찾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된다. 상품권 수령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관련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강진,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박차

보일러 교체비 100% 지원...‘연탄가구 제로화’ 목표

강진군이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 생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추진하는 ‘연탄가구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연탄을 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가스 또는 기름보일러로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연계해 연료 전환 이후 난방비 부담을 줄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25년도 연탄쿠폰 수급가구 71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난방 연료 전환 희망 가구를 적극 발굴해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과 협력해 대상 가구에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등 참여를 제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난방설비 교체를 넘어

연탄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증독과 화재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는 대표번호(1877-5488) 또는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72)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설비 교체를 지원받는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역 연탄 사용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추출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